

03 학력 평가와 모의 평가

3월로 알 수 있는 것과 없는 것

응시 집단과 범위

- ◆ 이 자료는 **무료**입니다.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.
- ◆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. **예측하지 않습니다.**

CONTENTS

01 먼저 사실부터	2
02 알 수 있는 것	3
03 알 수 없는 것	4
04 그래서 무엇을	5
05 자주 묻는 것	6

무엇이 들어 있나

- ◆ **알 수 있는 것** 넷 — 겨울방학의 결과 · 과목 사이의 균형 · 시험 치르는 힘
- ◆ **알 수 없는 것** 넷 — 수능 등급과 갈 수 있는 대학은 여기서 안 나옵니다
- ◆ 「시간이 모자랐어요」「알았는데 틀렸어요」 — **같은 낮은 점수의 다른 까닭**
- ◆ 3월에 하실 일은 **삼십 분**이면 됩니다 · 확인하실 여덟 가지

01 · 먼저 사실부터

3월은 조건이 셋이나 다릅니다

3월 성적표를 들고 오시는 부모님이 가장 많습니다. 그런데 3월 학평은 수능과 조건이 셋이나 다릅니다. 응시 집단이 다르고, 범위가 다르고, 준비 기간이 다릅니다. 그래서 알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뚜렷하게 갈립니다.

	3월 학평	수능
누가 보나	재학생만	졸업생 포함
범위	배운 데까지	전 범위
준비 기간	겨울방학까지	1년 더

세 줄이 다 「3월이 더 유리한 조건」입니다. 그래서 3월 등급이 수능보다 좋게 나오는 것이 보통이고, 그걸 모르고 3월 등급으로 대학을 말하면 어긋납니다.

그런데 3월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

한 해에 시험이 여럿인데 3월 성적으로 상담을 받는 집이 가장 많습니다. 새 학년의 첫 성적표이고, 그때 마음이 가장 급하기 때문입니다.

그러니 이 편은 「3월을 무시하시라」가 아닙니다. 3월로 알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고, 알 수 없는 것도 분명합니다. 그 둘을 갈라 두면 3월이 훨씬 쓸모 있어집니다.

출처: 시·도 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 안내 및 평가원 수능 시행 계획(2026년 8월 기준). 시행 일정과 응시 대상은 해마다·시도마다 다르다. 그 해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. 범위도 시험마다 다르다.

02 · 알 수 있는 것

그래도 값이 있습니다

3월이 쓸모없다는 뜻이 아닙니다. 알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.

	알 수 있는 것	어떻게
1	겨울방학의 결과	지난 겨울에 한 것이 여기 나옵니다
2	과목 사이의 균형	어느 과목이 처지는지
3	시험을 치르는 힘	시간 배분·실수·집중
4	출발선	여기서 시작합니다

2번이 3월에서 가장 값이 큼니다. 총점보다 과목별 백분위를 보십시오. 어느 과목이 다른 과목보다 20 이상 처져 있으면 거기가 올해의 일입니다.

3번도 놓치기 쉬운 자리입니다. 아는데 틀린 문항이 몇 개인지를 아이와 세어 보십시오. 실력 문제가 아니라 시험 치르는 문제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— 그건 연습으로 빨리 회복됩니다.

1번을 냉정하게 보십시오

3월 성적은 겨울방학의 성적표입니다. 겨울에 학원을 많이 다녔는데 3월이 안 나왔다면 그 방식이 안 맞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

이걸 3월에 확인하면 한 해를 다르게 쓸 수 있습니다. 그게 3월 시험의 가장 큰 쓸모라고 봅니다.

이 면의 읽는 법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정리한 것이며 통계로 확인된 것이 아닙니다.

03 · 알 수 없는 것

여기서 판단하지 마십시오

알 수 없는 것	왜
수능 등급	졸업생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
갈 수 있는 대학	위와 같은 까닭
수시나 정시나	아직 이릅니다 — 6월을 보셔야 합니다
전 범위 실력	안 배운 데가 남아 있습니다

넷째 줄을 짚어 두겠습니다. 3월 시험은 **그때까지 배운 범위**에서 나옵니다. **안 배운 단원에서 무너질지는 3월에 알 수 없습니다.**

그래서 **3월에 잘 봤다고 안심하시면 안 되는 경우도** 있습니다. **뒤에 나올 단원이 약한 학생**이 그렇습니다.

가장 흔한 실수

3월 성적으로 「이 대학은 어렵겠다」고 정하는 것입니다. 1년이 남아 있고, 아직 안 배운 것이 있고, 견주는 사람도 바뀝니다.

반대 실수도 있습니다 — 3월에 잘 봐서 「이 정도면 되겠다」고 놓는 것입니다. 6월에 졸업생이 들어오면 등급이 밀립니다.

양쪽 다 「조건이 다른 시험」이라는 것을 놓친 데서 옵니다.

출처: 시·도 교육청 학력평가 안내. 시험 범위는 학년과 회차마다 다릅니다 — 그 회차 안내를 확인하십시오.

04 · 그래서 무엇을

3월에 하실 일

과목별 백분위를 나란히 적고, 가장 낮은 한 과목을 고르고, 아이와 왜 낮은지 이야기하고, 1학기에 할 일을 하나 정합니다. 다 해서 삼십 분입니다.

셋째가 이 편의 핵심입니다. 같은 낮은 점수라도 까닭이 다릅니다.

아이가 이렇게 말하면	대개는
「시간이 모자랐어요」	푸는 속도 — 연습량입니다
「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」	기초 — 돌아가야 합니다
「알았는데 틀렸어요」	시험 치르는 법 — 회복이 빠릅니다
「안 배웠어요」	문제가 아닙니다 — 배우면 됩니다

3월 성적표를 받으시면 여덟 가지

- ☐ 3월이 재학생만 보는 시험인 것을 아는가
- ☐ 3월이 배운 데까지만 나오는 것을 아는가
- ☐ 과목별 백분위 를 적어 봤는가
- ☐ 가장 낮은 한 과목 을 골랐는가
- ☐ 아이에게 왜 낮은지 물어봤는가
- ☐ 「아는데 틀린 문항」이 몇 개인지 세어 봤는가
- ☐ 3월 등급으로 대학을 말하고 있지 않은가
- ☐ 1학기에 할 일을 하나로 좁혔는가

여덟째를 권합니다. 세 개를 고치겠다는 계획은 대개 하나도 안 됩니다.

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

3월 성적표는 판단하는 자료가 아니라 시작하는 자료입니다. 여기서 대학을 말하는 곳이 있으면 조건 셋을 물어보십시오 — 응시 집단, 범위, 남은 기간. 셋이 다 다른데 어떻게 대학을 말하는지를요.

05 · 자주 묻는 것

3월 성적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

Q. 3월 성적이 1년 간다는 말이 사실인가요?

흔히 도는 말이지만 근거를 못 찾았습니다.

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구조뿐입니다. 3월은 재학생만 보고 범위가 좁습니다. 6월부터 졸업생이 들어오고 범위가 넓어집니다. 조건이 바뀌니 순위도 바뀝니다.

다만 「잘 안 바뀐다」고 느껴지는 까닭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. 남들도 같이 공부하기 때문입니다.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니 상대적 위치가 잘 안 움직입니다.

그러니 「3월이 1년 간다」보다 「남들보다 더 해야 위치가 바뀐다」가 정확합니다.

바뀌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. 그게 어려울 뿐이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.

Q. 고1 3월 성적은 어떤 뜻인가요?

고3 3월보다 훨씬 덜 중요합니다. 중학교에서 막 올라온 시점이고, 고등학교 공부를 시작한 지 한 달입니다.

이 시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은 「중학교까지의 상태」에 가깝습니다. 고등학교 공부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.

그래서 고1 3월에 낮게 나왔다고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오히려 여기서 무엇이 비었는지 확인하시는 편이 값이 큼니다.

다만 수학이 크게 낮다면 그건 봐 두셔야 합니다. 중등 수학이 안 된 상태로 고등 수학을 하면 계속 벌어집니다. 그건 따로 다른 편(J3·C1)이 있습니다.

고1 3월은 「확인」이고, 판단은 훨씬 뒤입니다.

덧붙이면 — 이 성적으로 학원을 바꾸실 일도 아닙니다. 겨울에 시작한 곳이라면 아직 두세 달치고, 바꾸면 적응에 다시 몇 달이 듭니다. 한 학기는 보시고 정하시는 편이 대개 낫습니다.

한 줄로 남기면

3월로 알 수 있는 것은 겨울방학의 결과와 과목 사이의 균형입니다. 수능 등급과 대학은 알 수 없습니다.

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시행 안내를 정리한 것이며, 읽는 법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온 것입니다. 시험 범위와 응시 대상은 회차마다 다릅니다.